Drive Your Play

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놀이환경이 필요한 기관을 찾습니다.

자동차 시트 제조과정에서 나온 가죽, 어떤 모습일 지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?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, 부산물, 불량품 등 버려질 뻔한 '휴면자원'은 어린이와 만나 새로운 놀이 가 되고, 어린이의 놀이는 창의적 재사용의 시작점이 됩니다.

지구를 위한 새로운 순환 'Drive Your Play'는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합니다.



1.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: 2025. 9 2025. 12
- 지원대상: 전국 아동청소년 교육 · 돌봄기관 총 6개소

(경기 화성시, 충남 서산시 소재 우선 선발)

- 그룹홈, 지역아동센터, 초등학교, 국공립어린이집, 병설유치원 등
- 단 사립유치원, 사립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은 지원 불가
- 2. 지원 내용 *신청서 작성 시,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기관에서 원하는 유형 택 1
 - **1. 프로그램 지원** (총 3개소)
 - 휴면자원을 활용한 '창의적 재사용 실험실' 프로그램 총 6회차 운영
 - **2. 프로그램 지원 & 놀이 환경 조성** (총 3개소)
 - 휴면자원을 활용한 '창의적 재사용 실험실' 프로그램 총 6회차 운영
 - 기관 내 '창의적 재사용 실험실' 자체 운영 가능한 놀이 환경 조성(작업대, 재료대, 스툴 등 어린이 가구 제공)

3. 선발 과정
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: https://forms.gle/MHSE8SNzZDVYxDjc6
- 온라인 신청서 제출 마감: 2025년 9월 17일(수) 자정까지
- 신청서 접수 → 현장실사 대상기관 발표 → 현장실사 & 담당자 인터뷰 → 최종 선발
- 프로그램 운영: 2025. 9 2025. 12 (기관별 협의)

4. 최종 선발 시 참여기관 역할

- '창의적 재사용 실험실' 운영을 위한 기관 내 공간 협조
- 기관 내 자체 운영 가능한 놀이 환경 조성 시, 제공된 환경 조성 물품 관리 및 모니터링 (약 1년)
- 기관 내 비치된 휴면자원 재료, 놀이 환경 이용 현황 모니터링 내용 공유

| 휴면자원이란

휴면자원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, 부산물, 불량품 등 다양한 재질, 형태, 색상을 가진 자원을 의미합니다. 자원(ZAONE)은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고, 놀이를 일으킬수 있는 휴면자원을 찾아 창의적인 교육 재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.

l 창의적 재사용 실험실은

창의적 재사용 실험실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소재, 모양의 휴면자원을 직접 만져보고 자유롭게 탐색하는 과정입니다. 기관 유형에 맞는 재료와 도구를 비치하고, 총 6회에 걸쳐 어린이가 원하는 대로 재료를 다루고 직접 자기만의 작업을 주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

ㅣ이런 기관이면 더 좋아요

- 어린이가 자유롭게 대화하고, 소리내고, 움직이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곳
- 어린이가 주도하는 창작, 놀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곳
- 다양한 언어적,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있는 곳
- 기존 공간을 변형하거나 활용해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싶은 곳

본 사업은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현대트랜시스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.

현대트랜시스의 자동차 시트 연구,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가죽 자투리를 교육재료로 전환해 어린이가 창의적 놀이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[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참고운영사례]



- 2024년, 초록우산과 함께 휴면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'창의적 재사용 실험실' 운영 사례
- 지역아동센터나 보육·교육 기관의 빈 교실 등 <u>유휴공간에 '창의적 재사용 실험실'이라는 별도</u> 공간 구축
- 서울 은평구, 노원구, 경기 시흥시 등에 거주하는 5~12세 아동 및 교사 등이 참여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, 이주배경아동 등 포함
- 최소 운영 기간 2주 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시간 제한 없이 놀이에 참여. 창의적 재사용 실험실에 비치된 휴면자원은 42종으로, 플라스틱 45%, 섬유 20%, 종이 13%, 금속 11%, 고무(및 기타) 11% 등 순
- 참여 어린이 소감: "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서 막막했는데,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이 모자란다" "같은 재료로도 매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. 계속 생각해야 되니 힘든데 동시에 짜릿한 기분도 든다"
- 기사원문: 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471535

*기관 특성, 현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위 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